

# 교회소식

- 예배 후 4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묵상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이번 주 범위: 사사기 21장 ~ 룻기, 사무엘상 16장).
- 다음 주일(5월 1일) 예배는 외부에서 드리고 공동체별로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시: 2022년 5월 1일 오후 1시  
장소: Parnell Community Center  
주소: 545 Parnell Road, Parnell, Auckland 1052  
(주차 안내와 변경사항은 주중에 공동 체장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 홈페이지가 새롭게 잘 단장되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꾸미는데 수고한 목토미 집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 한 주간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여 받은 바 은혜를 계속 이어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며, 다과로 섬겨주신 일본 공동체,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신 박제란 권사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식사 교제 떡은 이해경 집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 성찬에 초대받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M a y

## 교회사역일지

5월 1일(주일) 자녀주일  
5월 8일(주일) 부모주일  
5월 22일(주일) 권사 기도회  
5월 25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 기도순서

5월 1일 (주일) 장경희 집사  
5월 4일 (수) 김은희 집사  
5월 8일 (주일) 박제용 장로  
5월 11일 (수) 김자경 권사

##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박영선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St Luke's Church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00 pm  
청년예배 2:45 pm  
유아부 1:00 pm  
아동부 1:00 pm  
청소년부 1:00 pm  
수요예배 7:30 pm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4권 17호 2022.04.24

주일예배	오후 1시 0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18:17-19	인도자
*찬송	8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98장	다함께
대표기도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14-18	인도자
찬양대찬양	신자되기 원합니다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육신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이태한 목사
찬송	94장	집례자
성찬예식	229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답송	411장 (1,3절)	다함께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선교란

## 이번 주는 일본 동경 강태영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 동역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가운데 모든 것이 위축되어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교회와 일본의 영혼들을 힘 있게 살아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벌써 시작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기도 모임:** 1월 6,7일에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기도원에서 신년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소수였지만 방역에 최대한 주의하면서 교회와 사역과 성도들의 개인 기도 제목 등을 중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리 내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매년 하자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례식:** 3월 27일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둔 한국인 자매님의 세례식이 주일 예배 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저희 교회에 연결이 되어 약 5개월간의 세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하며 평소에는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예배 때만 되면 눈물이 너무 흘러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일 새벽 기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여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성경도 통독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교회에 연결된 아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은혜를 주셨으며, 중학교 졸업식 기념으로 부모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 준 엄마에게 감사하며,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쓴 편지를 보면서 자매님이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도 교회 와서 많이 밝아지고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세례 받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 기도제목

1. 사역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2. 예배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넘치도록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민경 집사
성	경	마가복음 2:13-17
경	봉	<b>부르심과 따름</b>
독	독	이태한 목사
설	교	80장
찬	송	다같이
합심기도/주기도		

# 나눔란

## 2022년 4월 17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부활 신앙의 의미> 누가복음 24:1-12

아무리 가치 있는 화석이라 해도 화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삶이 없는 것은 신념에 불과한 화석 신앙입니다. 믿는 것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재현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큰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면서도 그 큰 돌을 누가 굴러줄까 염려했습니다(막 16:3). 그러나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그 돌을 굴러냈습니다(마 28:2). 예수님은 이미 무덤 밖에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돌을 굴러낸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려고 옮긴 것입니다. 인생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역경의 돌을 옮겨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돌이든 옮겨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의 해결자 이심을 믿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하는 내 인생의 돌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옮기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알려주자(7)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8). 책임지지 않는 세상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고 그 약속이(창 3:15)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도(창 15:13,16) 광야에서 그 자손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며 성취하셨습니다(신 8:16). 하나님은 거짓말도 후회도 없으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민 23:19). 가장 불가능한 부활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다른 약속도 다 지켜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현실은 어렵고 종착역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3) 받은 사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더 이상 장례 향품은 필요 없게 되었고 오히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보고 들은 자답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확인하고 실천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날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처럼(행 20:24)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움으로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거룩함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2. 예수 중심 성경 읽기가 잘 정착되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3.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